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기업의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예비조사를 지원하거나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이스라엘, 홍해-지중해 항만 간 새로운 물류루트 개발 계획 발표 -----	2
□ 브라질 77개 터미널 운영권 재입찰 계획 -----	3
□ 자메이카 정부, 해운·물류산업 투자 발표 -----	4
□ 호주 BHP사, 캠블러항 석탄터미널 확장 계획 발표 -----	5
□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6

□ 이스라엘, 홍해-지중해 항만 간 새로운 물류루트 개발 계획 발표

- 지난 3월 5일 이스라엘의 Benjamin Netanyahu 총리는 홍해의 엘라트(Eilat)항과 지중해의 텔아비브(Tel Aviv)간 350km를 잇는 철도 개발과 지중해 연안의 하이파(Haifa)항과 아시도드(Ashdod)항을 연결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
 - 개발 계획 수립의 목적은 수에즈 운하를 대신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 해상무역의 새로운 루트를 제공하는 것이며, 아울러 수에즈 운하 폐쇄 가능성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물류관련 보험정책(Insurance Policy)에 근거
- 이 계획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홍해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해안선은 고작 11km에 불과하며, 홍해에 위치한 엘라트항은 이스라엘의 관광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개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한편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말까지 법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건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개발자금은 현재로서는 3가지 옵션을 고려 중에 있는데, 첫째는 정부 재정투자, 둘째는 민간자본 유치, 셋째는 외국 정부 지원 등임
 -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교통부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하면서 철도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철도건설에 경험이 많은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함
- 엘라트항은 인산염과 칼륨을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아시아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항만으로써 2011년 현재 취급 물동량이 이스라엘 해상화물의 6%에 불과한 소규모 항만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20만 TEU이나 1991년 59,000TEU를 처리한 것이 최고 수준

< 엘라트항과 텔아비브 철도 연계 및 하이파항과 아시도드항 연계 사업 >



김찬호 부연구위원(☎ 02-2105-2908, chkim@kmi.re.kr)

□ 브라질 77개 터미널 운영권 재입찰 계획

- 브라질에는 1993년 항만법(Ports Act) 신설 이후 민간, 민관합작 등 약 330개의 터미널과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77개 터미널의 운영권이 2013년까지 종료될 예정
 - 따라서 브라질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and Secretariat of Ports)는 2013년까지 77개 터미널에 대한 운영권을 갱신할 것으로 발표함
 - 브라질의 터미널 운영권 계약은 대부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25년 기간 동안 체결되었으며, 금번에도 추가 25년으로 계약할 예정임
- 브라질 경제는 2011년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의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벌크 및 컨테이너항만은 수출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브라질 컨테이너 물동량은 1999년~2010년 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약 7.3백만 TEU 처리
 - 따라서 브라질 정부는 금번의 터미널 운영권 갱신을 이용하여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에 대응하고 항만의 생산성과 처리능력을 제고할 계획임
- 현재 글로벌 운영사와 선사는 브라질 항만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경쟁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DP World는 산토스항에 2013년까지 Embraport를 개발하고, APM도 MSC와 함께 Right Bank¹⁾에 유사한 규모의 터미널을 2013년까지 개발할 예정임
 - 또한 최근에 Triufo는 Barnabe & Bagres 지역에 87만 TEU의 하역능력을 갖춘 터미널 개발 계획을 승인받음²⁾
 - 그 외 중형 규모의 글로벌 운영사인 Grup TCB 및 ICTSI도 현재 운영 중인 터미널을 확장하고, Hamburg Sud와 MSC 등은 Itapoa와 Itajai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함
- 운영권 갱신 기간 동안 벌크 터미널의 경우 배후 광산업자 및 화주의 전용 터미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한편, 일부 컨테이너 및 벌크 터미널은 생산성 향상 및 투자 유치 차원에서 신규 운영사에게 운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 : www.lloydslist.com, 2012.2.8; www.lloydslist.com, 2012.2.28.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1) 산토스항은 강의 우측을 Right Bank, 좌측을 Left Bank로 지칭하고 있음

2) 산토스항의 Embraport, Banaber & Bagres 지역의 터미널 개발계획은 약 10년 전에 수립되었으나,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었음. 그러나 브라질 경제 및 물동량의 급격한 성장, 향후 성장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 개발이 진행 중임

□ 자메이카 정부, 해운·물류산업 투자 발표

- 자메이카 산업·투자·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Investment and commerce, MIIIC) Anthony Hylton 장관은 해운·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
 - 동 프로젝트에는 킹스톤항(Port of Kingston) 준설 및 시설 확장공사, 잭슨만(Jackson Bay) 드라이 도크 및 카우만(Cow Bay) 벙커링 시설 구축, 화물 창출 및 시설 유지보수, 케이마나스 경제자유구역(Caymanas Economic Zone, CEZ), 베르남필드(Vernamfield) 수리 및 운영시설이 포함됨
 - 킹스톤항에서 9마일 떨어진 케이마나스 경제자유구역은 2011년 건설을 시작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상업, 산업, 기술, 컨퍼런스, 녹색공원, 레크레이션 지역 등임
- 관계자에 따르면, 자메이카는 미국의 무역·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과 고용 유발을 위한 잠재적인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아울러 자메이카의 해운·물류산업의 발전 및 국제무역을 위한 지형적인 이점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현재 페르시아만의 투자자로부터 의향서(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확보함
 - 또한 향후 자메이카는 서반구의 해운·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는 경제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편 자메이카 정부는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인 “비전 2030 자메이카”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10대 통합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현대화, 투자 및 상업 촉진, 운영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

< 케이마나스 경제자유구역 조감도 >



<케이마나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자료 : worldmaritimenews.com, 2012.3.2.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 호주 BHP사, 캠블러항 석탄터미널 확장 계획 발표

- 호주 캠블러(Kembla)항은 5억 달러(호주)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석탄 터미널을 확장할 계획임
 - GAC(Gulf Agency Company)¹⁾에 따르면 석탄 수출입 물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터미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 호주 동부 지역의 예상 석탄 물동량은 현재 1,800만 톤에서 2014년에는 2,2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기존 벌크 선석의 수심을 준설하고 처리시설 장치들을 업그레이드 할 것임
- 캠블러항은 호주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 석탄 매장지역에 인접하고 있음
 - 따라서 증가되는 석탄 물동량에 따라 터미널과 창고 부지 확대도 함께 계획하고 있음

< 캠블러(Kembla)항 위치 >



자료 : 캠블러 항만, 2012.3

< 석탄터미널 확장 선석 위치 >



- 캠블러항의 2010년/2011년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 72.4%를 차지하였고 동기간 주요 수입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강철로서 62.8%를 차지
 - 캠블러항은 주로 석탄, 철강 제품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2010/2011 연간 전체 물동량은 3,360만 톤임
 - 또한 항만 내의 철도 인입선 확충이 진행 단계에 있어 물류비용과 운송시간의 단축으로 보다 효과적인 물류수송이 기대됨

자료: www.porttechnology.org / www.kemblaport.com.au, 2012.3.12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i@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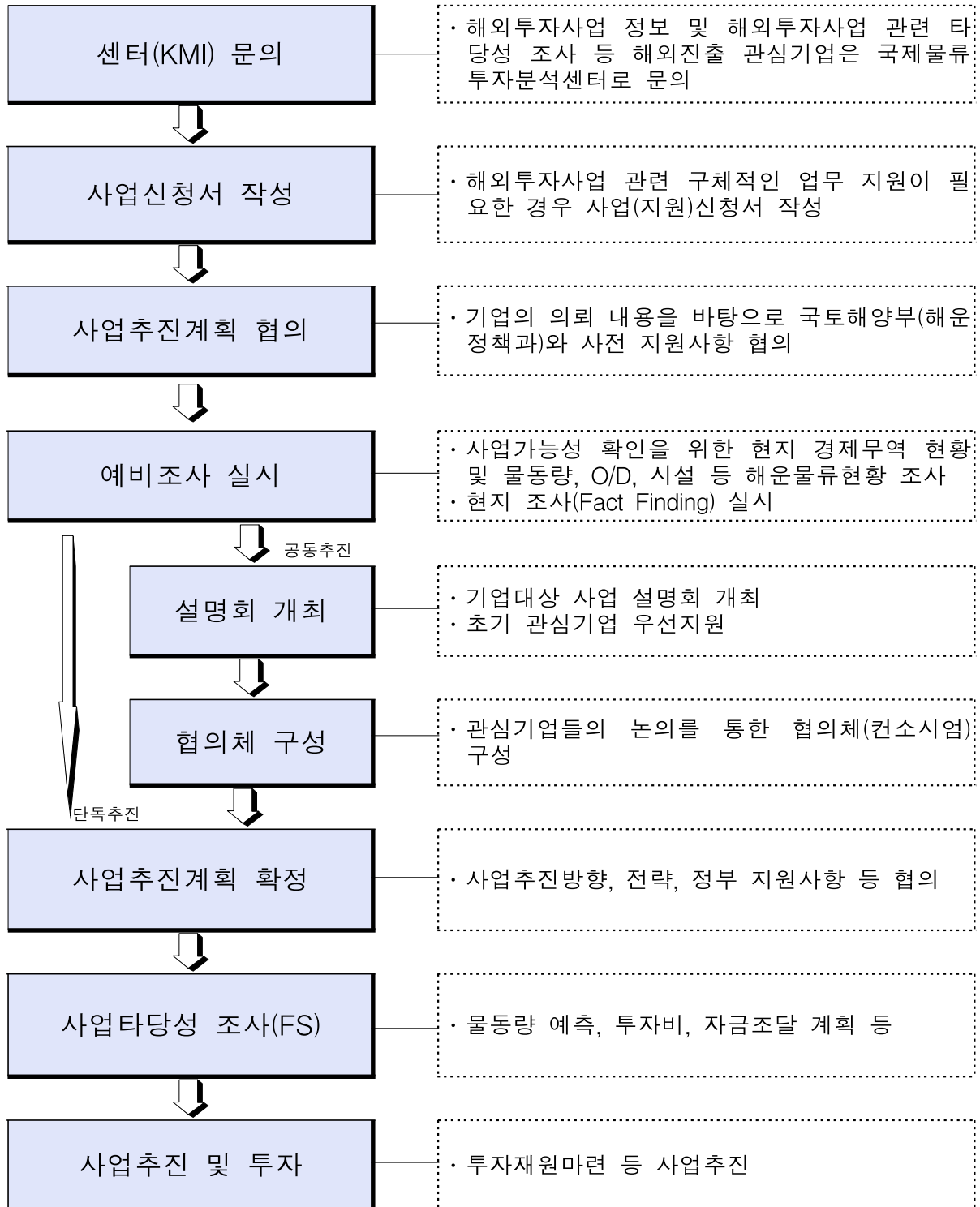
1) Gulf Agency Company(www.gacworld.com)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2.2.23~3.23
2.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소재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3.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관련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4.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오영록/최희동, 02-2110-6372/8558)
5. 기타 참고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